

금연클리닉·심뇌혈관 예방 등 시민 건강 100세 시대 쟁긴다

목포시보건소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추진

목포시보건소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365일'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 보건소는 아동부터 100세까지 생애주기·생활터별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특히 연초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열풍으로 클리닉이 열병을 앓고 있다. 이에 목포시 보건소를 찾아 금연 열풍 현장을 살펴보고 직접사업 등을 짚어봤다.



금연클리닉 상담



영양플러스 사업



생활터 중심 걷기운동 지도

금연 열풍, 복직하는 클리닉

올들어 한달새 839명 금연 등록

연초부터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으로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연 클리닉이 북적거리고 있다. 시보건소 3층에 위치한 클리닉에는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대기자들 무수했다. 2명의 상담사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방문 상담자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등을 통한 개인별 금연상담을 펼치느라 진땀을 흘렸다. 이 와중에 전화도 걸려온다. 대부분 '금연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금연상담 방법 등을 묻는 문의 전화다.

기존의 금연 클리닉 등록자보다 신규 등록자까지 밀려들어 하루 평균 60~70여 건에 달하는 내방상담과 100여 건의 전화 상담으로 요즘 상담사들은 말 그대로 소름이 돋아날 정도로 바빠지고 있다. 2014년 한 해 클리닉 등록자가 총 2073명인데 비해 올해 들어 한달새 벌써 839명이 등록해, 금연 열풍을 넘어 광풍 수준이다. 박주진 건강증진담당은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자보다 금연성공률 3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담배는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끊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금연클리닉 방문을 적극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금연 클리닉은 현재까지 1만 8315명이 등록, 39.1%인 7172명이 금연에 성공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증진사업

영양위험률 47%→24%로 낮춰

시 보건소는 아동부터 청소년, 임산부, 중·장년층,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시키고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금연과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이 대표적 케이스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개선해주는 '영양플러스'사업의 반응이 가장 뜨겁다.

이 사업은 조리실습, 가정방문 식품관리교육, 대상자별 맞춤 식품 공급, 고위험군 영양평가 등을 통해 영양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 1400여명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률을 47.65%에서 24.75%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펴고 있는 장미선 모자보건 담당은 "지난해에 참여한 주민 180명의 빈혈율이 사업 참여 전 48.77%에서 참여 후 8%로 대폭 감소하는 등 영양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모든 만성질환은 식생활과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영양플러스 사업의 효과와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에도 주력

작년 건강증진 전남 1위·전국 3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터 중심의 걷기운동'도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들의 습관화된 생활태도와 운동소홀 등으로 걷기운동 실천율이 점차 낮아져, 걷기운동 지도자를 육성해 매주 2회 이상 생활터 주변의 걷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급식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179개소를 현지 출장해 공동취사 식생활안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상설 교육장인 '고혈압·당뇨병 없는 100세 건강교실'을 통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보건소는 '엄마도 아이도 행복한 건강 가정 만들기'를 목표로 ▲임산부 2500명 등록 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생순위별 축하금 지급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 등 다양한 사업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제로, 안전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역학조사반(6명)과 격리치료 시설 4개소 92 병상을 확보해 감시·대응·신고체계를 구축, 감염병 발생을 조기 차단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목포시보건소는 이 같은 다양한 사업 전개로 지난해 전국 25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합동 평가에서 건강증진분야 전남 1위, 전국 3위를 차지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김대중, 그 불멸의 순간' 특별전

DJ기념관 내달 18일까지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관장 최명호)은 오는 3월 18일까지 '김대중, 그 불멸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14주년을 맞아 기념관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고 노력한 시간을 회상하며 화해와 평화정신을 계승하고자 마련됐다.

"일리스토로 본 위대한 생애"라는 주제로 운영되는 특별전은 김 전 대통령이 1926년 신안군 하의도 외딴섬에서 태어나 2009년 영면에 이르기까지 삶 전체를

통해 주요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나 이슈를 일리스토로 표현한 그림(손문상 화백) 55점을 선보인다.

그림마다 김 대통령의 자서전을 집필한 김택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해설을 붙여 한편의 논픽션 소설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전시한다.

최명호 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및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해 헌신했던 시간을 재조명한다"며 "불방학과 실연기간에 가족, 친지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시 상반기 정기인사...4급 2명 승진

여성사무원 2명 탄생

목포시가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지난 6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6기 조직개편과 공모연수, 명예퇴직 등의 인사요인에 따라 4급 승진 2명과 5급 승진 10명을 비롯해 국·과장급 33명에 대한 전보인사다.

시는 근무경력과 능력,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업무능력은 뛰어났으나 그동안 소외돼 승진하지 못했던 직원들을 발탁한 것을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꼽았다.

시청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와 관련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초 예상을 뒤엎고 여성 사무원이 2명이나 탄생하면서 과격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이 대거 5급으로 승진해 '노인당 인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그동안 요직으로 평가받던 자치행정과 전임자들이 승진에서 배제돼 의외라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외부에서 관심이 더 높아 각종 설이 난무하고, 대상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소문들이 나도는 등 불쌍사나운 촌극을 연출해 비난을 받았다. 또 인사에 앞서 실시된 근무평정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목포시 관계자는 "민선 6기 조직개편 인사인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 조직의 변화에 부합하는 인사에 중점을 뒀다"면서 "예측 가능한 인사확립을 위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역동적이면서도 시민과 소통하는 조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대 LINC사업단-전파진흥원 상생발전 간담회

목포대학교 LINC(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과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KCA)은 지난 5일 목포 폰타나비치 호텔에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순영 목포대 LINC사업단장, 김명룡 KCA원장, 박양근 공과대학장, 정순남 경영학과 교수와 오창렬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ICT분야 CEO, 전남도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의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사업 추진 정책과 방향·역할에 대해 소개하

고, 지역에 맞는 ICT융합 산업의 분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주제로 토론했다.

또한 현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실증단지 시범사업과 관련해 KCA, 대학, 산업체 및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역 ICT분야에 종사하는 CEO들은 KCA가 운영하는 콘텐츠 제작센터 지원사업이 지역 중소기업에도 많은 기회가 주어지길 희망했으며, 지역의 유능한 ICT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학·관 간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광	222-9440
남부	8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백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8-8605
신안	512-1732
오산	571-7658
양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중곡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8604
진철	673-1600
진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8511
동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이농인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